朝鮮日報

今日四面

社說

漢字廢止論 — 두번째「가갸날」에 즈음하야 —

三

그러나 이러한 貴重하고 微妙한 글월을 가지고도 어찌하야 오늘날까지 저 難澁한 漢文에 얽매여 國文의 自由로운 發展을 보지 못하고 내려왓든가? 우리의 國文은 저 支配階級의 智識獨占慾 漢文에 對한 執抑한 先入見으로 말미암아 餘地없이 짓밟히고 말엇다 그리하야 諺文이라는 卑俗한 待遇를 받게까지 되엇엇다 오늘날의 우리로서 저 漢文의 國文發展에 對한 惡影響을 한번 생각해볼때에 우리의 感情인들 어찌 저에 對하야 順坦할수잇으랴! 하물며 中國自體에서도 白話運動이 이러나는 이때라

大學北伐할際에 張作霖과結托하야 黨과政府를破壞한罪라고

南京政府의唐生智討伐理由

(上海二十二日發) 南京政府의 唐生智討伐令內容은 左와 如하더라

唐生智는 國民政府가 大學北伐하야 閻錫山、馮玉祥氏等과 共同出兵할際에 張作霖과 結托하야 國民黨과 政府의 破壞를 計劃할뿐아니라 人民을 困難케하고 마음대로 軍隊를 增加하야 湖南、湖北、安徽三省을 根據로삼고 共產黨을 驅逐한뒤에도 共產黨員을 採用하는 等의 陰謀와 罪狀이 禍心을 包藏하고 逆敵과 通하야 黨에 違背한 罪를 難免할것임으로 一切의 職을 剝奪하고 軍事委員會에 引渡하야 法에 依하야 處罰할

南京軍蕪湖占領

(上海二十二日發) 南京政府軍事委員會로부터 二十日에 臨時會議를 연 結果、武漢派의 唐生智討伐令內容은 이미 報道한바 어니와 그 討伐의 理由는 唐氏는 張作霖과 結托하고 政府의 統一을 破壞하랴는 陰謀를 運하고 잇는 程潛李宗仁氏等은 討伐軍을 引率하고 前線에 赴하게되어 程軍은 벌서 二十日에 完全히 占領하엿다더라

武漢軍安慶集中

(上海二十日發) 安徽省 蕪湖로부터 온 消息에 依하면 蕪湖에 잇든 武漢派 劉興氏의 軍隊는 安慶附近에 集中하는中이라더라

南京派程潛氏의第六軍及陳調元氏의第三十七軍은 南七哩되는 地點에 臨迫한 南京派 程潛氏의 第六軍及 陳調元氏의 第三十七軍은 同夜十時 小蒸汽船으로 安慶에 逃亡하고 軍隊는 十九日朝外처 南京派軍의 이러한 不意의 攻擊을 防禦코저 軍隊를 集中하는中이라더라

◇唐生智討伐은 ◇南京派의自衛

(上海二十一日發) 危險狀態에 잇든 南京派와 武漢派의 關係는 드듸어 缺裂되어 南京政府軍事委員會에서 廿日 緊急會議를 연 結果 唐生智氏 討伐을 宣布하게 되엇는데 右는 唐生智氏가 安徽에 入하야 同地를 自己勢力範圍內에 收한後 南京을 肉薄하랴는 氣勢가 잇슴으로 南京派는 程潛氏等 地盤이 업는 第三勢力은 自衛上 唐生智討伐을 決하기에 至한 것이라고 觀測되더라

唐軍과策應하야

孫軍이南京側을牽制

(北京二十二日發) 唐生智氏와 孫傳芳氏와의 間에 過般來 頻頻히 使者가 往來하엿는바 諒解가 成立된듯하다 孫氏는 南京에 對하야 以前野心을 버리지 안코 其機會를 기다리고 잇던바 唐과 南京政府가 開戰하게 된 까닭에 孫氏는 唐軍에게 策應하야 南京軍牽制의 行動을 이르키는 것이라고 期待되더라

蕪湖上流의 航路는 危險

(北京二十一日發) 生智麾下 何鍵軍은 二十一日 大通通過인 招商局 汽船 孝順號에게 武力으로써 停船을 命하야 折留後 船客의 上陸을 强制하엿스며 또 蕪湖上流의 長江航路는 目下 危險한 까닭에 中國側 汽船은 全部 不通으로 中國汽船는 二十一日부터 上流航行을 停止하엿더라

抑留中英飛隊 母艦에 復歸

(上海二十二日發) 今春來 南京路 競馬場에 抑留中이던 英國飛行隊는 昨夜 撤退하야 飛行母艦『알가스』號에 復歸되엇는데 同母艦은 近近 香港에 向할터이더라

山東軍 彰德占領

新鄕으로更進

(北京廿二日發) 山東軍의 孫傳芳軍은 二十日 河南省 京漢線의 彰德을 占領하고 다시 新鄕에 向하야 進軍中이더라

隴海線의 直魯軍益西進

馮玉祥形勢漸次不利

(北京二十二日發) 隴海線의 直魯軍은 歸德、임洲集으로부터 前進하야 關堡을 占領하고 開封에 逼迫中임으로 鐵道沿線各地方에 散在한 繼兵軍은 거의 馮軍을 離하야 直魯軍에 降服中임으로 馮軍의 形勢는 자못 不利한바 張作霖氏는 昨日 某氏와 會見의 際에 馮玉祥氏의 本據인 鄭州를 一週間 內에 奪取하겟다고 言明하엿다 고함으로 馮氏의 地盤은 益益 脅威되는터이더라

奉票回復으로 必死努力

(奉天電) 劉奉天省長은 就任以來 奉天票의 維持에 努力하여 온바 官銀號中 中國主義에 依하야 金融을 維持하려고 官銀號의 資金을 豊富케하는 一方 軍警에 命하야 錢鈔業者들 嚴重히 取締하야 一個月 內에 적어도 急히 百五十萬元限度를 恢復하겟다고 素話中인바 若恢復치못할時는 現職을 辭하리라고

奉派對山西態度

最高軍事會議서決定

涿州晋軍尚强抗

奉天大部隊增援키로

山西派에도 和平論有力

(北京廿三日發) 山西派에도 和平論이 有力하다 山西派가 있서 現在의 山西軍에 和平論이 漸大有力하게 되는 中임으로 近近 最高會議를 開하고 態度를 決할 이라고 觀하더라

海賊捕縛

廈門行汽船中

(上海二十二日發) 招商局汽船 愛仁號(一三五〇噸)는 二百餘名의 船客을 태워가지고 上海로부터 廈門으로 航行中 十九日午前八時 船長運轉手等이 朝食中 船客으로 扮裝한 十數名의 海賊이 突然出現하야 船客의 荷物을 掠奪하는 同時에 船長以下 船員을 監視하며

三階段에난운 米國海軍計劃

太平洋의 防禦策으로

(華盛頓二十日發) 米國下院海軍委員會委員『인자아나』州選出議員『아푸다이크』氏는 太平洋防禦策으로서 左의 三段의 海軍案을 委員會에 提出하엿더라

一、現在의『산데—고요우』港을 太平洋艦隊의 實로 有力한 潛水艦根據地로서 設計를 改新할事

二、比律賓群島의『오룬고포』에『마린』兵(海州派遣陸兵)의 養成所를 設立할事 此에 依하야 合衆國은 外額百萬弗의 派遣費를 節約할수잇슴그런데 極東의 有事할際엔『마린』兵이 敏速히 現場에 派遣할수잇다 고信함

三、目下『싼치고』港에 繫留中인 港艇驅逐艦을 解體하던지 拂下하든지 處分할事

이 問題는 現在 海軍長官『윌바』及 派遣陸兵隊司令長官『두주신』氏와 懇談中이더라

軍縮思想宣傳

英세실卿이運動開始

(倫敦二十一日發) 英吉利前『랑카스타』皇領尙書『세실』卿은 軍縮思想宣傳을 爲하야 運動을 開始하얏스나 卽卿은 英吉利政府의 國際聯盟에 對한 態度가 뜻에 맛지 안는다 고 公職을 辭한 後 最初의 演說을 國際聯盟協會에서 試하엿는데 左와 如하더라

英國民은 納稅額 一磅에 對하야 十四『시링그』를 過去戰爭에 依하야 바든 打擊과 및 將來의 戰爭豫備에 支拂한다 此와 如한 不當한 重荷는 他의 諸國民의 負擔하는 것보다 도 遙遠히 多大한 것이다 다시 現在 吾人이 國家의 軍備를 爲하야 實際로 支辨하는 高는 貨幣價値의 差는 잇스나 去一九一四年의 支出에 比하야 遙遠히 高額이다 然함에 不拘하고 戰前의 艦隊에 比較할수잇는 艦隊는 하나도 歐洲의 大洋에는 업다 露西亞는 確實한 事情은 判明치 안흐나 歐洲에는 英國만이 一九一三年에 比하야 高額의 軍備費를 支辨하는 터이다

强制仲裁에 反對는 遺憾

(나우엔二十一日發) 英吉利前國際聯盟代表이오 有名한 平和主義者인『로바트·세실』卿은 今日 倫敦에서 演說中 英吉利는 獨逸이 그가티 贊成한 强制的 仲

外品禁止檢疫

妥協後實施

(華盛頓二十一日發) 米國務長官 케록氏는 濠洲務長官『잘만』氏와 會見後 目下 佛蘭西及 其他 諸國間에서 紛爭中인 衛生的 見地로 본 外國品 輸入禁止及 檢疫은 今後 國務省과 協議後 實施하겟다 고 語하엿더라

米墨間行列車

武裝으로警護

(墨西哥시치二十一日發) 墨西哥聯邦政府 陸軍省은 墨西哥와 米國과의 間을 運轉하는 列車는 總히 武裝兵으로써 警護하고 鐵道沿

露國參加希望

國際聯盟軍縮總會에

(東京電) 國際聯盟의 軍縮準備委員會總會는 來十一月中旬『제네바』에 開催하기로 되엇는데 右會議에 對하야 露西亞側은 參加의 希望이 濃厚한바 最近 露新聞은 聯盟事務局은 반드시 露西亞에 會議參加의 招請狀을 提出하겟고 萬若 招請狀이 잇스면 露西亞로서는 欣然히 此에 參加할것으로 其場所는 過般의『오른노프』事件도 解決되엇슴으로『제네바』에서 開催되더라도 何等 支障이 업다 고 論하엿더라

排日運動委員會組織

東三省과南京이聯合

(上海二十日發) 東三省의 日本滿蒙侵略反對運動宣傳團은 二十日 南京의 五十七團體의 代表를 招待하야 聯合으로 排日運動委員會를 組織하고 排日宣言及 四十四條의 標語를 發表하엿더라

日露漁區指定

解決條件提示

(東京電) 日露漁業條約은 過般 調印을 終了하얏스나 二十五工場에 附隨한 五十漁區及 露西亞 國營漁區의 指定에 對하야 日本側은 正式調印後 細目協定을 할 것이라고 主張하야 一致点을 見치못하얏스나 最近 露西亞는 便宜解決條件을 提示하엿슴으로 來月中에는 解決될 模樣이더라

政治運動促成方略

에對한一考(一)

若 嬰 生

一、必要論과 方法論

... 會議로부터 回程中인 芹村兄의 書翰도 잇서서 이제 멀리의 遺感으로써 積阻한 問安을 가름합니다

저번 崔麟氏의 歐米漫遊의 途次에 이곳 僑留同胞들이 餞別講演會를 開催하얏슴때의 일입니다 崔麟氏와 同伴하야 온 李晶燮氏가 우리 內地의 社會事情을 陳述함에 當하야『우리는 이것이 必要하니 或은 저것이 必要하니 밤낫 必要論만 主張할 時期는 이미 지내엇고 무엇이든지 必要한『그것』을 엇더케하얏스면 着着實現하겟느냐』가 目下의 對策이라 한 소리는『누가 우리의 大同團結을 必要치 아니하다 하겟스며 三尺孩童인들 願하지 아니할者잇슬가 마는 다만 問題인것은 엇더케하얏스면 이와가튼 目標의 實現을 爲하야 時宜의 對策을 講究하겟느냐 卽 우리의 問題는 『必要論』이 아니요『方法論』이라』喝破하얏습니다 勿論 以上의 論點에 對하야는 누구나 異論이 업슬줄압니다 그데 李氏의 大同團結이 方法論에 들어가서 지금 그이의 言句를 一一히 記憶하지는 못하나 大體의 要領을 따서 말하면『어느 時代 어느 社會이고 民智가 적이 啓發된 境遇이면 相當히 民衆의 輿論을 딸아 그 歸趨의 左右하고 右左할 可히 決定할 수가 잇슬터이나 우리 朝鮮과 가티 아즉 一般民衆의 智識程度가 幼稚한 오늘날에 잇서서는 누구나 엇더한 一個人의 指導者를 中心삼아 絶對의 權力을 맷긴 後에 그이의 獨裁的 擅斷으로써 萬事를 決定치 아니하면 아니되리라』高調한 後에 그 例證으로 古今의 史實을 만히 列擧하얏고 다시 갓가운 事實로써 伊太利 뭇솔리니의 獨裁와 伊太利 앤쏘뻣의 핏시스즘을 자못 禮讚하야 마지 아니하얏습니다

勿論 이러한 論旨는 엇지 이 李氏에게 限하야 唱道한바이라 하겟습니까마는 이러케 指名하야 말하기까지는 이러한 議論이 안이나 밧기나 或은 途上 論說로 만히 流行되는 一例로된것에 不過합니다

二、方法아닌 方法

그러면 旣往 말이 낫스니 말이지 이 李氏의 大同團結의 方法論이 或은 이 李氏와 가튼 意見이 世間多數의 論者의 主張과 가티 이러한 獨裁主義의 統一方法이 지금 우리의 處한바 現實狀態에 잇서 果然 어느 程度까지나 實現될『可能性』이 잇슬가 否할가를 試驗삼아 吟味하야 본다 하면 엇지될가요?

다시 말하면 議論으로 보아 그 點是點非의 正否는 論外로 하고 또는 李氏의 말과 가티 所謂 必要하니 不必要하니의『當然』『不當然』도 問題삼을것 업시 곳 短刀直入的으로 그 主張이 우리에게 實現될 可能性이 잇는가 업는가의『有無』를 상고하야 보자는 말슴이외다 이 點에 關하야 李氏의 런高見을 듯지 못하얏스니 다시 李氏를 對象으로 하야 이러니 저러니 하여 과서 云謂할 것 업거니와 이 問題의 自體는 依然하게『問題 그대로』남아 잇다 할 수 밧게 업습니다

外交官大異動

首相歸京後正式發表

(東京電) 石井 佛蘭西大使의 辭退에 伴한 外交官의 異動이 될 것은 旣報와 如한바 石井氏의 後任으로는 足達 白耳義大使가 榮轉되고 白耳義大使에는 埴原 前米大使가 就任하기로 決하엿는데 然이나 首相의 歸京을 기다려 發表될 터이다 尙 駐英大使 松井慶四郞男은 自今부터 外交官生活을 勇退할 決意를 가지고 잇엇스나 今回 非公式으로 辭意를 表하엿슴으로 外務當局에서는 其後任者를 銓衡中인바 大體 現駐米大使 松平子를 推하고 駐米大使에는 外務次官 出淵氏로 決한 模樣이다 그런데 次官의 後任은 아즉 內定치 안헛스나 永井 瑞典公使 歸任說이 가장 高하다 然한데 此 第二次 異動은 本年末이 될터이더라

石井氏의 隱退로

駐佛露使後任

도氏로任命

(莫斯科廿二日發) 駐日勞農大使『도부카레스키』氏는 後文書名 問題로 召還되라 코회스키 氏의 後任으로 今日 正式으로 駐佛勞農大使에 任命하엿더라

對日通商條約 獨逸議會通過

(東京電) 日獨通商條約은 十月二十日 獨逸議會를 通過하엿는바 批准交換은 十一月末 東京에서 行할 터이더라

駐日米大使館

建築費可決

(華盛頓十八日發) 米國政府 在外公館建築委員會는 東京大使館建築費 數百二十五萬弗、上海總領事館新築費 七十五萬弗、奉天領事館新築費 七萬五千弗을 可決하엿다더라

每日氣像報告

無電會議에勸告

(華盛頓二十一日發) 船舶業者等은 國際無電信會議에 對하야 海上의 天氣豫報設備를 完全히 하기 爲하야 航行中인 船舶으로서 每日 氣像報告를 作成시키어 主要船舶 中心地에서 이것을 集合할 것이라고 勸告하얏더라

『오』大學의 辯論部員一行

來月渡日

(布哇十八日發) 米國『오레곤』大學 辯論部員 一行은 十八日 來布하엿는바 十一月初에 渡日할 豫定인데 一行은 特히 一、列强은 中國의 治外法權을 撤廢할 것이다 二、民衆政治의 失敗 等의 論題를 揭하고 잇더라

英派中兵歸着

(『크리스마스』(英吉利)廿二日發) 英吉利 中國派遣軍 四百名은 本日 運送船으로 當港에 歸着하엿더라

東京造兵工廠

小倉에 移轉

(東京電) 陸軍省公表=震災後 移轉復舊를 考究中이던 陸軍造兵廠 東京工廠 一部는 來年度에 小倉으로 移轉하기로 決定하엿더라

勞組現在數

內務省調査

(東京電) 社會局 調査에 依하면 去六月末 現在의 日本內 勞働組合數는 四百八十八、同組合員數는 二十九萬二千三百三十五(內 一萬二千九百八十四)

職業別로 示하면 左와 如하다

種別	團體數	員數
職業別	一三五	一三、七七四
產業別	二一八	二三六、一一九
一般勞働者	一三五	三二、四四二

又 單獨聯合別로 示하면

種別	團體數	員數
單一團體	二一九	一二六、六二一
聯合同盟團體	四五	一五、七二
(其加盟團體)	二二四	

齋藤總督進退

年內不表示

(東京發) 齋藤總督은 歸國後 諸方面에 人事와 身邊의 用務도 一段落을 告하얏슴으로 二十八日頃에 歸任하야 管內의 事情觀察을 하고 明年度 豫算編成 等을 調査할 豫定인바 年內에는 進退問題의 意志表示는 하지 아니하리라고 觀하더라

八面鋒

○ 唐生智는、張作霖과 結託하야、南京政府를 破壞한 罪로、討伐한다고、事實이면 可伐이 겟지

○ 山西派 中에도、和平論者가 잇다고、奉天派에게、買收된 人物이 아닐가

○ 東三省 排日團은、南京의 五十七 團體와 聯合하야、排日運動委員會를 組織하엿다고、全國化하는 模樣인가

○ 石井氏의 辭退로、外交界의 大移動이 생긴다고、一波動萬波動인가

懸河가튼熱辯에 關西民衆運動解散
百數十代表모힌會席上에서 朝鮮現下政情을討論中

관서민중운동자대회(關西民衆運動者大會)는 예뎡과가티이십이일에 안주청년회관(安州靑年會舘)에서개최한바 평안남북도(平安南北道)와황해도(黃海道)와또멀리 경성(京城)과동경(東京)등디의 각로동단톄(勞働團體)급사상단톄(思想團體)로부터 삼십구개단톄의 대표자일백십칠명이 출석하엿스며 또그밧게평양녀성동맹대표(平壤女性同盟代表)와 안주공녀조합대표(安州工女組合代表)등여러녀성단톄의 대표까지참가하야 실로장엄한긔분속에 아츰일곱시부터개회된바 벽두에 개회연설과축사등이잇슨뒤 오후 한시반부터세시까지 잠간휴게를하엿다가다시 각대표의 강연(講演)에들어가 위선전세계정세(世界情勢)의보고가잇슨뒤계속하야 현하의 조선정정(朝鮮政情)에대한연설이잇든중 과격한 언사가잇섯다는리유로 돌연히 림석경관으로부터 중지해산을 당하엿는데 그때가여섯시사십분 이엇다하며 더욱이까닭에 만흔준비를차려가지고 개최하려하든이십삼일의대회까지 중지하지아니치 못하게되엿더라

一、勞農黨特派辯護士加藤氏에激勵文發送의件
一、無報酬辯護士에게感謝文發送의件
一、共產黨公判辯護士團에激勵文發送의件
一、中央高普盟休事件批判演說會開催의件

朴烈事件關係 金重漢氏檢束
언사불온하다는리유로 大會에서釋放要求

더욱 조선정정에대한 연설이잇든중 박렬사건(朴烈事件)에관제하야 세상을 몹시놀래이든김중한(金重漢)씨의 언사가 불온하다하야 안주서에 검속(檢束)을당하엿슴으로 동대회에서는 한근조(韓根祖)외량씨를대표로선뎡하야 안주서에 석방하도록 교섭중이라더라(평양뎐)

朝鮮靑總의 集會도禁止
이십삼일종로서에서 【重要時事討議中止】

긔보=시내청년총동맹(靑年總同盟)에서 이번공산당사건피고고문에대하야 이십삼일 오후한시에동회관에집합하야 고문사건에대한 대책을강구코저 하얏든바소관종로서에서는이십삼일오전에 동청년동맹의송언필(宋彦弼)씨를호출하야 전긔집회를금지하얏다는데 당일토의하려든사항은 다음과갓다더라

一、警官拷問事件對策講究의件
一、中央高普盟休事件調査報告及學校當局反省要求代表派遣의件

政府責任當局에 布施氏抗議提出
세가지됴건을들어제출

공산당 사건을 변호코자조선에왓다가 일시동경으로 돌아간변호사포시진치(布施辰治)씨가변호사단에 보내인 편지를보면그는될수잇는데까지일본무산계급에게공산당사건의 의의(意義)를철저와 블넣을 폭로시키고다시동경정부책임당국에동경에잇는조선동포와함에

一、총독총감 경무국장등이 잇지아니하고 광직(曠職)이엇든가? 광직이엇다하면 조선총독에 총독총감 경무국장등이 필요치안혼가?
一、조선총독 정치에 사법권의독립이잇는가? 독립이 잇다하면 이번공산당공판에 사법권을 침해한데대하야 엇더케처치 할터인가?
一、공산당사건 공판에폭로된인권유린(人權蹂躪)사법경찰관 고소문데의책임은 엇지할터인가?

의세가지 조건을들어 엄중한항의를 하얏다더라

新幹京城支會 宣傳委員懇談
지난이십이일

신간회경성지회(新幹會京城支會)에서는 지난이십이일오후여섯시부터시내태서관(太西舘)에서 동회 선전부위원(宣傳部委員)사십여명및 본부와지부의간부(幹部)를 합한륙십여명의 간담회(懇談會)가잇서서 선전에대한 여러가지 감상을교환한후동일한시경에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더라

大阪勞組 裁判公開로 항의를결의

공산당공판방텽금지에대하야각

風前燈火가튼— 重病被告의生命
보석이되어도살기가어려운두피고 瞑目前에故鄕山川이나!

조선공산당사건 피고중에 방금신병이위독한 신텰수(申哲洙)리재익(李在益)김동부(金東富)박헌영(朴憲永)등의 네사람의보석문데에대하야 변호인들이이십이일 오후공판이 씃난다음에 재판소로시본재판장을 방문하고 교섭하얏든바 시본재판장은감옥에서 병상증지(病狀證明)가아니왓다고함으로 변호사리인(李仁)씨가 다른 변호인

中國共產黨 積極活動開始
세가지표어를내세우고 각디에다수선전원파견 警察鐵道沿線嚴戒

美人出家逃走

東大門署巡查 刺殺犯畢竟逮捕
오래동안의문중에잇든 【主犯金元植은龍仁署에】

槿友例會석레 女子室內競技
본사우층에서 【主客이興味津津】

正義府義勇隊 根據地는天摩山

高陽郡酒類品評

大邱에爆彈破裂 怪日人堀切이絕命
死者는南北滿放浪漢

校友會總會 대책강구차로

盟休生態度 依然强硬

二十靑孀 己兒壓殺

引責辭職聲明書 依然未決의中央校

永樂町火災

日人切山某 朝鮮人蹴殺

小兒燒死

三十一名은不起訴 起訴는結局七名
新義州稅關吏事件後聞

新興水電의 八名慘死詳報

時局犯漸次增加
○○團이都鄙에出沒

東亞婦人商會

갈곳업서自殺

凶年엔賭租 豐年竝作

一名의 拳銃靑年

間島領事館의 裁判에

大邱靑盟 激勵文發送

管轄도決定前에 反對云云은不當

한글誕生紀念四百八十二回

우리겨레의紀念할날

가갸날

……세우고자할진대 우리의 글을 넓게 펴치고깊게 쉬움을 피하며 써 그깨침의 묘 향을 다할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남이따르지 못할만한 이묘하고 귀중한 글월을 가지고 온지 오래이다 그러고 이날이 이글의 나온날이다 이날이 이야날로 참으로 우리가 길이길이 잊지못할 날이며 우리가 여긔다가 속을 붕고 갑있이살리어내일 우리문화의발전을 굳게 맹서하는날이다。

가갸날괴렴에대하야

장지영

한글의統一을目標로

◇白夜 李常春

訓民正音原本첫장

……커있어서 各自의意見만을主張하야 甲論乙駁으로 또는 大衆으로하여금 부질없은머리를 앓으면서 迷路에 彷徨하게하지 않고 斯界의 代表가될만한 모임을 만들어 놓고 때때로 서로 모이어 各自의 硏究案을 내어놓고 討議를 討論하야 가장 바른 것을 찾아統一의 計劃을 세우고 統一의 敎體을 얻도록 一致한 결음을 걸어야 하겠다 나는朝鮮語硏究會가 그 使命을가지고 많은 努力을 하고 있는줄로 믿는다 그러나 좀더 具體的으로 힘있으면 한다

僭越하지마는 學者諸氏에게 한 말슴을 돌이고저한다 各各 홀어저 있어 自己와 學說만을 固執하지 말고 大衆을 標準으로하고 좀더 科學的으로 硏究하야 冷情한 머리로 學者的 批判을 나리며 어떠한 境遇에는 自己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讓步하면서라도 統一이란 그것을 爲하야 한곳에 모여들어서로 서로 握手하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四百八十二回의 한글誕辰을 臨하야 今年부터는 우리와運動이 統一의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바라는 작은 忠誠으로써 平素에 늦긴 바를적어 大衆과 및 學者諸氏에게 돌인다

整理期의朝鮮文 (一)

申明均

文字的意義를 全然히 잃어버리고 한갓 閉中에만잡기어있든우리朝鮮文도 이제는文字的實用期에 들어있다 敎育도宗敎도 이것으로말미암아 베풀게되고 言論도詩歌도 이것을말미암아 나타내게되었으니 이만하면 朝鮮文도 이제는글다운행세도하고 글다운대접도받는다고하겠다 그러나본래朝鮮文은좋아먹은딸로 아무鍛鍊이없이제풀로 자랐기때문에그實用의範圍가 넓어가고 그運用의程度가 高尙하여질스록 날로달로 그의缺陷만을 發見하게된다 이것은朝鮮文自體에그만한 缺陷이있는것이 아니라 이를運用하는사람들의 硏究가 게으른때문인줄안다

본디글로서는 갖후어야만할條件이세가지있는줄안다 첫재로배호기가수워야할것이오 둘재로는 보기가쉬워야할것이오 셋재로는 印刷하기가 便利하여야할것이다 이세가지點으로 보아서 우리가朝鮮文은 世界에第一이다 하는自負를가지고 있는것처럼 朝鮮文이 果然理想的이나 하면 오는날現狀으로는 到底히이를首肯할수없는 바이다

보기

배호기에만 便利한點으로는 漢字를뒤을 文字가 없을것이오 배호기에만 쉬운便으로는 日本假名에 지나는것이 없을것이오 印刷의簡便으로는 英字에지나는것이 없을터이지마는 漢字같은것은學者와印刷에不便하기론아마世界에그類가없을것이고 假名같은것은 배호기는比較的쉬워도보기와印刷에는 역시 短處를 가지고있다

이것이 이거시냐이거디냐 (一)

李秉岐

一

오늘날에야 아무리 궁벽한시골일망정 우리글로된 신문한장이나 잡지한권이라도 아니가는고든없으리라 이만큼 우리글이 보급됨을보면 유교의 사상만존중하고 한문만을 글로알고쓰든 그시대는 벌서지나갔으며 또한 우리도 우리의것으로 차저돌아옴을알며 아니깃버할수없는 일이다 더욱이지난해이때로 부터는 우리말과 글의운동에더한힘과애를 써오는터이다니『문맹퇴치』(文盲退治)니『내마음을 내글로』니하여 신문과잡지와로도 떠으나 선전을하였으며 딸어서『한글강습이니』『한글회』니하는것이 각처에서 많이들생겻섯다 지나간해만 이럴뿐이랴앞으로도그보다 더한 운동이있어더한성적을 얻을줄로믿으며 우리

二

말과 글에대하여 그릇하는몇몇가지를 들어말하고저한다 이것도우리글운동의 한도움이 될가합이다

『이것은』『욻』이거든』이라
『이것을』『욻』이거들』이라
『이것이』『욻』이거디』나『이거지』든

읽는때위의『ㅅ』바침을『ㄷ』이나『ㅈ』의소리로 내는것이 있으니 이런글을 읽을제에는 말과글과는 관면히다르게된다 말로하자면

『이것은』『ㄴ』이거슨』으로
『이것을』『ㄴ』이거슬』로
『이것이』『ㄴ』이거시』로

하면서 글로읽을제에는 딴소리를내니 이것은 말이틀린것인가 글이틀린것인가 그저 말소리대로만 적을것같으면

『이것은』『욻』이거슨』이라

이날을긔렴하야

조선어독본결뎜과다행한소식

정열모

일의 근원을 추구하고그것을 긔렴하는것은 다만 그큰본을잊어버리지않는다는뜻을 보이는데 그치지아니하고 그일의새뜻을 발견하고 그것을힘있이발견시기려함에 더큰의미가 있는것인줄안다 그러한의미에서 우리가 일치하여 훈민정음반포일을 긔렴한다는것은 우리스스로 에게 늘새로운깨우침을주는 열쇠가될것이라고한다 그것은 지나간해에 우리가 그날을긔렴한뒤로 얻은「한글」운동의 효과를보아도 한소리나면 나는만큼그공명이 커가는것임을 확실히증명하는것이다

그러한데 우리말문제가 생긴것은 멀게잡으면 사백팔십여년이라하겠지마는 갓갑게 잡으면 삼십년을 넘지못할것이다 그러한데 그동안의 문제는 놓 형식방면으로 기울어진 혐의가있다 다시말하면 넘우어학적인한쪽에 기울어졌었다 또다시말하면 그동안의

우리

말은문법가의손에서만짓주물린듯한 혐의가있다는말이다 물론 한나라말을 정리한다는 편으로보면 문법가의 손을 빌것은당연한일이다 그러나 문법가이란것은늘 말의 형해――곳껍덕이만을 가지고 혹은분류도하고 혹은종합도하는것이오 말에다 생명을봉어주는일은하지못하는수가많다 말은 국민의정신을 담는그릇인이상 그내용방면을 등한히한형식주의는 경국좋은결과를 얻지못할것이다 그러한데 우리는 섭하나마 불행이 그동안형식주의에만 기울어저온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들의큰유감으로알어온바이다 앞으로는 암만하여도 형식과균등한 내용을충실히하도록 힘써야하리라는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여러문사에게 긔머하는바가 많다 말의완성은문법가의 농사가 아니라훌륭한문학자의 노력에서 더큰효과가나는까닭이다

생각

이만큼맞게되면 딸아서일어나는것은 말의교육에대한 문제이다 말의교육은 물론말의형식을 가르치는동사에 국민정신을 심어주는것이다 그러한 생각을가지고 현행하는 조선어독본을볼때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고저함인가를 의심한다 형식을주장한것도 아니오 내용을 위주한것도아니다 요컨대 두두뭉술이에 이름모를 괴물이다 이러한교과서를 가지고는 조선어의성적이 나라나지 아니할것은 선생님네의 죄뿐이아니다『소가가오』『말이달어나오』하는따위의덤덤한말솜시가 어찌하며 아이들의흥미를끌며 흥미없는교재에서 무슨학습열이 생길것이랴

이러한말을 그네가 들으면조선에는 문학이 없으니어찌하느냐?하는 구실을 말한다하기는 그네에게는만여집이니원씨를어이니하는 거룩한문학이 있다 그러하니까소위그네들의

현대

문학이란것은전통적을본넘새뿐이고 외국사람을 번역한자최는 가지지않었더란말이었다 그래 그네말과같이 지나간조선에 문학이없었다하드라도 앞으로의 조선에 문학이 생기지말란법은어데있을것인가 일본의 누구누구의작품이 문학으로 가치가있어그것을 교과서에 채용하는것이라면 현대조선의 누구누구의 작품도 같은값이있을것이다 만일그네말처럼고문학만을가진나라만이 국어교육을 할수있는것이라면 아라사나 덕국같은데는 국어교육이 성립되지 못할것이다그아말로 역사에서 살면서역사의사실을부인하는 몰상식한 억설이다 그네는 암만그러한 속입수단을농락하지마는 열리어 가는사람의지혜에서나오는욕망의힘은굽이처몰리는 조수의 세력보다더세차다 근일에 나는이러한소식을들었다 경성시내 각보통학교교원의 학급담합회에서 현행조선어

독본

의불완전한것을개탄하여장차그개정을건의하기로 결의하여 요구조건을연구중이라는데거긔는물론이론과합치하는철저한형식주의와 사상을 중심한문학적교재를풍부히봉도록하자는것이가장유력한 주장이라는것같다 어쨌든 문화중심지에 게신이들인만큼 그생각이 초월한것을알수있거니와 교육 실제가들이이러한데 눈을 뜨게된것은우리교육계를 위하야 크게경하할일인즉더욱 그실현에 노력하기를바라는바며 필요하다면 우리들의적은힘이나마 한가지 하기를앗기지않을가하고이날에득히붙한것이다

訓民正音序

禮書判書鄭麟趾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枘鑿之鉏鋙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强之使同也吾東方禮樂文物侔擬中夏但方言俚語不與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聰始作吏讀官府民間至今行之然皆假字而用或澁或窒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做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該括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崇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以是解書可以知其義以是聽訟可以得其情字韻則淸濁之能辨樂歌則律呂之克諧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焉遂命臣等詳加解釋以喩諸人庶使觀者不師而自悟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恭惟我殿下以天縱之聖制度施爲超越百王正音之作無所祖述而成於自然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夫東方有國不爲不久而開物成務之大智蓋有待於今日也歟

月印千江曲

世祖가首陽君으로잇슬때 丙寅年에그母親이신昭憲王后沈氏를當하고 世宗의命을받더니 釋譜詳節을撰譯하야 正音으로적고그釋譜詳節」이라하야 世宗께바치매世宗께서 『月印千江」이라이름하신것이다 信眉、守眉、雪峻、弘濬、曉雲、智海、海超、斯智、學悅、學祖및金守溫等當時의여러碩學과및名學에게出議하야世祖가親히지은것인데 世宗二十九年丁卯(西紀一四四七年)七月二十五日首陽君의序가잇슴으로보아서그當年에完成한것으로볼것이오世祖四年己卯(西紀一四五九年)에刊行한듯하다龍飛御天歌보다八年을압서서刊行한셈이다朝鮮佛敎文獻上으로도 貴重하려니와더욱이『한글』로된 佛歌의開祖인것은勿論이다 무어이나모다貴重品이다(摠南鄕氏의藏本에依함)

月印千江之曲第一

[illegible]

우리말을바로잡으라면

辭典이第一緊要

◇朝鮮辭典編纂會 鄭寅普氏談

오는날우리朝鮮에잇서서 글쓰는사람들의글을보면 實로誤謬가적지안습니다 아마그글中에 正音이그대로나오는것은十의二三에도지나지못할것이외다 우리의朝鮮語辭典編纂의意義가 實로여기잇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한民族이잇고 言語가 잇는以上에는 그들의獨立한文字가 잇지아니하고는 견되지못할것이외다 보십시요! 東西洋을勿論하고所謂나라라일것고 民族이잇다고일컷는곳에 그나라의 標準될만한 文字를 모하準典으로만들어노흔것이업는가들──그것이完備치못하고 또한錯誤가 만타든가하는것은 이에問題가되지안습니다 爲先그辭典하나가 잇다는것만하야도 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朝鮮은 民族의歷史가오랜것은姑捨하고라도 正音이發表된것만하야도 이미四百八十餘年을넘지안엇슴니까? 그런데도오늘날까지 우리가準則하야 나갈만한言語集하나가업는데야 엇지합니까? 더구나여러가지複雜한事情에몰리어 그나마한가지두가지씩 이저버려서가라하는데야더욱이나애닯을일이올시다

그야最近에와서 編纂된것이업지도안흔貌樣입니다마는그래야不完全하기작이업고錯誤투성이일뿐더러 더욱이우리의손으로된것이아님으로 아조미들것이못될가합니다 이緣由로하야서 우리朝鮮말의辭典하나를編纂──이에對하야서는어느편에서는룡하는사람도잇는것갓습니다 마는──하라고한것이올시다 勿論그亦是아조完全無缺하게되리라고는미리장담치못합니다다마는 何如튼全力을다하야는볼作定이올시다

그런데이에잇서서우리는 처음두가지難關을가지고잇섯습니다 그하나는말을몰으는데困難이오 또하나는金錢問題이엇습니다 그러한가온데 첫재困難에對하야多幸히 辛亥年以後로李奎榮、金枓奉等諸氏가 着手한것이잇서서 그것에依하야적지안흔便宜를엇게되엇고또한편金錢問題에잇서서도 其後各方面의後援이次次만허저서 인제는過히念慮할바가업시다만 專心言語蒐集과編纂에注力할따름이외다 그리고時日에對하야서는처음二年間豫定을하엿스나 實相着手하야노코보니 그러치못하야좀더긴時日을要할것갓습니다

한글問題를어떻게解決하여갈것인가 (一)

崔鉉培

朝鮮에는 當面한問題가 많다 첫재 朝鮮은 世界의朝鮮이다 그리하여 朝鮮은全世界의問題를 分有하고있다 오늘의朝鮮사람은 世界의사람이다 딸아世界全人類의 問題를共同으로 解決할責務를가진것이다 그리하여 이 예人나라잔약한백성들에게맡할수없시 무겁고도 緊切한여러가지의 問題가 그當然한 解決을追求하여맡지아니한다 그리하여 복숨이있고 피가뛰는우리朝鮮 젊은사람들은 여러方面에서제각기이 여러가지 問題中 저에게가장 適切하고 緊要한대로 그를解決하고자 피로싸호며 목숨으로다토며 긔운으로벗티며 맘껏힘껏「할것은하여보자!」하는 긔운이 온朝鮮에들어찬것을본다 그리하여 우리는 全民衆의 徹底한努力과 勇敢한奮鬪에는 成功의 福果가종당은오고말것을 굳이믿어 의심하지아니한다

이제 여기에提示한 한글問題는 우리온朝鮮民族에게 賦課된 問題中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民族 에게 特別한課題이다 그리하여 우리民族의聰明한 智慧와 誠勤한努力이 이問題의解決에 關하여 要求됨이 甚히많다 우리는 世界人이라 世界的問題의 解決에

解決

에努力할特權한才能과 無比한誠悃을 가지었다 이才能과 誠悃을다하여 이朝鮮的問題──한글의整理와 發揚의功을 收함이 朝鮮人인 우리의 우로 조선문화를 만들어내며 빛내며 기르어서 우리에게 기쳐준 祖先을 對하며 앞으로 우리의조선생명을 天地가 다하도록잇고잇고다시이어가며 빼치고빼치고다시빼치어갈 永劫의 子孫에게 對하여 當然히 履行할 義務이다 그뿐아니라 다시 생각하면 世界各民族의제각기의 固有한 言語를 修整하며 特有한 文化를 培養하여 燦爛한 人類文化의 동산에 한가락 놀애를더하며 한줄기 화초를 보태이 케각기 分有한人類的任務인즉 우리의 提擧한 한글 問題가비단 朝鮮的만이 아니라 世界的이며 朝鮮民族的만이 아니라 世界人類的임을 肯定치 아니치못할것이다 果然 그러하다 現今 우리조선사람에게는 民族的 自覺과 人類的 覺醒이 並存함을 본다

言論機關먼저實行한다면

◇培材高普 ……

이한글발뎐상크게필요한일이아니겟습니까?

우리학교에서는 특별히 한글에대하여서 장려한다거나 또한장래에대하여서구데뎍(具體的)방칙은아즉정치안엇습니다마는 예뻐로 학생들에게 참고로일러주기는합니다 엇잿든장래에엇더케하겟느냐고 물으시면 꽉대답하기어렵습니다

만약한글을 연구하는 사람이만히생기는동시에 각언론긔관(言論機關)이전부한글을상용(常用)하고 그외에 한글을쓰는이가만허지는 때에는 좋은 한글에 힘쓰기를 권고하겟스나 그이전에는 그저참고로학생들에게 일러주는외에는 다른수는업습니다 하여간 이문데에대하야 그러소홀이 알지는안습니다 동시에만히생각해 보겟습니다

한글講習會

時時로開催

◇同德女高 趙東植

한글을 보급시키라면 무엇보다도먼저 널리 선전하는것이첫재인줄압니다 우리 학교에서는한글 보급에 대하야 특별한 시설도업고 또한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도업스나 긔회잇는때로힘써가르치라합니다 지난 월에한주일동안 본교에서 한글강습회를열고 우리학교 학생들은물론이요 다른학교 학생들에게도만히와서 배우게 한일이잇섯습니다 압흐로도 필요에의지하야 이러한방법을 사용할가합니다

短期講習으로

한글을敎授

◇進明女高 任正準

우리학교의 조선어시간을 마트신 리세영(李世永)씨는 원래부터한글에 대하야 비상한연구가잇슬뿐아니라 작년가량 긔념일이지난뒤로는 더욱 열심으로권문뎌공부를 하다십히 합니다만 하야가르치는터이올시다학교로서는 여긔대한 량해는잇스나단 아서 생도들에게도 권심권력을 긔강습가튼것이라도 열어서 가지생도들에게 힘써 가르치려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엿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선생으로는한글강습이 열릴때마다 권부가서배호다십히하엿습으로우리학교에서는 그로말미암아 간접으로생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적지안흘것입니다

한글普及策과男女各校의方針研究熱旺盛한近日

五六年前부터 正音을敎授

◇培花女高 金智煥

우리학교에서는 벌서 오륙년전부터 생도들에게 정음(正音)을교수하여왓습니다 주시경(周時經)씨의저술한 책에의지하야 문법을 가르칩니다 현재사학년에는 한주일에한시간식 한글문법을 과정으로가르치고 일이삼학년에는 조선어시간에 겸하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작년은의례히한글문법대로 하게함으로 우리학교생도들은 여긔에 매우익숙합니다 이것은아마 우리학교의큰자랑거리의 하나이줄 압니다

特別科目으로 敎授에盡力

徽文高普 金亨培

괴강습가튼것을 하는것도 매우 필요한일인줄 생각하지마는 모도가뜻대로 되지못하는것만 유감으로압니다

다른학교에서도 혹시그러할는지는 몰으겟스나 우리학교에서는 될수잇는대로 교원뿐아니라 학생끼리도 이날을 마음깁히 긔념할날이줄압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한글에대하야 다년간 연구하시며 애써나려오신 리병기(李秉岐) 선생이 계셔서 조선어시간이나 조선어 작문시간외에도 특별히 각반의과목에 따로히한글시간을 너허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비록적은시간이나마도 장래에잇서서는 큰효과를 나타내일것이올시다 학생들도 다른과정에도 물론중심하지만 더욱이 한글에대하야 자미들을 부치는 모양입니다 엇잿든 조선사람되고는 이날을긔렴하여야 할줄압니다

한글의奬勵가 吾校의特色

◇普成高普 鄭大鉉

우리학교에는다른학교와다른점 중에데일 조흔점이 잇다고하면 이한글에대하야 학생에게 힘써 장려하는것일가합니다 다른학년은 모르고 일주일에한시간식 한글을 가르치며 특히일학년은 따로히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결코수의과(隨意科)로하는것은아닙니다 이사람이 그런 케인가 사립학교교원과 공립학교교원몃몃치 모힌 어느좌석에서특히다른과정도 그래야 하겟지만더욱이 이한글에대하야서는자금이후로 학교에서 정한과정으로하야서 가르칠필요가 잇다고사담으로 몃마듸말한 일도 잇지만 이한글을가르치지 안는 학교에는깁히생각할줄생각합니다 조선사람되고서 이한글에대하야 등한이 한다면얼마나붓그러운일일가요그뿐인가요? 우리후손들에게 잇서서 여간죄가되지안흘것일까합니다

모르면羞恥 今後方針研究

◇梨花女高 安衛中

우리학교에서는 아즉과정으로 정음(正音)교수에 착수한일은 업습니다 그러나 조선어시간에선생되는이가 여긔에만히 참고하야 가르칩니다 조선사람으로서 조선글을분명히 모른다면큰 수치일뿐아니라 속히발면을 시키기위하야서라도 학교에서과정으로 가르치거나 여긔대한단

한글研究라면 學生맘대로

◇貞信女校 千潤鍚

한글보급은학교에서부터시작하는것이매우유리한일이요또한첨경인줄 압니다 우리 뎡신녀학교에서는 일정한과뎡으로 한글을가르치지는 못하지마는 조선어시간에 특별히정음에 권력을하다십히합니다그리고생도들에게는누가들 리용하야거긔에대한강습이라도 할긔회가 잇스면할수잇는대로 단이게합니다 지난칠월에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한글 강습이열리엇슬때 에도우리 학교생도들이 다수를 참석하엿습니다 압흐로도 긔회를보아아못조록 이방면에힘쓰려합니다장차교육자립성에슬사람으로써또는장차남의어머니될사람으로써 먼저확실히 아는것

正規時間外는 極難한形便

◇京城女高 孫貞圭

경성녀자 고등보통학교 에서는특별히 한글에대한 과정은업습니다마는 조선어 시간을마트신장응진(張膺震)씨가이방면에만흔연구를 하심으로 조선어시간을리용하야교수합니다 압흐로도우리학교에서는 이방법 밧게는 더나가지 못할형편입니다

宮體글시와글 특히장려

◇淑明女高 成義敬

우리숙명학교에서는조선어시간에선생되는 이가 정음(正音)에주의하야 가르치는것밧게 학교당국으로서는 여긔대한 별반연구도업고장차 엇더케하겟다는 궁뎨로쓰는 글시와글에 대하야 비침도업는모양입니다다나는 원래로흐취미를 가졋고또한 만히연구하는터임으로 나개인으로는 힘써할수잇는데까지생도들에게 가르처줍니다

天氣豫報 晴後曇

◇溫度 廿三日 正午 최고 …
◇比較 廿二日 最高 六六、七
◇日出前六時四八 晝間十時五七
◇日入前六時四五 夜間十三時三

七日을連한四人의高喊聲
安東刑所重大事變
―백여명수인이밤낫널뛰며고함치며 동네가소란한무시무시한고함소래―
百餘盟罷說과戰慄할騷動

경북안동(安東)신세동(新世洞)에잇는대구형무소안동지소(大邱刑務所安東支所)에서복역하는죄수백여명은 지난달 이십칠일부터 약일주일간이나 소동을 니르키어 한고함(高喊)을 처서그 부근도로에 지나든 행인들과 형무소(刑務所)갓가히사는동민들귀에까지 들리게 되엇슴으로 필경 중대사실이 돌발된듯하다고하는데 이사실이 형무소렬창속에서 일어낫슴으로 인하야 자세히는 알수가업고 참인지거짓인지 엇더한곳으로부터 들은바에의하면모간수(某看守)를배척코저 일어난일인듯한데 백여명의죄수들이 동맹파업까지 일으킨듯도하고 수만흔 죄수들의 일치 행동임으로 형무소당국자들은 처치하기에 난감하야 고두통거리가 되엇다하는데 고함소리가일어난 당시로부터 만긔(滿期)가되어출옥(出獄)하는사람은 즉시경찰이불러다가 단단한주의를하는터이라 혹이나 세간(世間)에누설될까하야 형무소에서는 사실을 상급관청으로 일변보고(報告)를 하는동시에 죄수들의 고함친것만은시인하나 원인과사실에 대하야서는극비밀에부친다더라(안동)

安東社會團體
소동진상조사

별항보도와가튼대구형무소안동지소(大邱刑務所安東支所)에서 백여명의 죄수들이 고함을치고 동요한듯하다는 말에대하야 지난십구일에 안동신간지회와안동청년동맹에서 각각조사위원을파송하야 진상을조사 하야머 동지회에서파송된대표가형무지소장에게 질문한말을 긔록하면

【問】 去月二十七日부터約一週日間을囚人百餘名의大擾動이 일어낫다고하는事實은一般民衆이周知하는바이니 그에對하야調査할일이잇서서所長을面會하려왓스매 그에對한誠意잇는答辯을하여주오

【答】 所長의職務으로서는이事實에對해서말할수업슴니다

【問】 監獄에서發生한事實은엇더한일이거나누구를勿論하고 이야기할수업다는뜻이요

【答】 그런것은아니나우리로서는上部監督機關의命令에依하야執務할뿐이고新幹會等一般社會의監督을밧지아니함으로 이야기아니하여도좃슴니다

【問】 그러나우리가監獄의內情을알라는것은아니고今番事件은一般民衆에게惡影響이만흘뿐아니라 百名囚人들이사람살려라 安東에사람이 업느냐 이러한소동을일으킨것은社會的으로興論을일으키지안늘면아니되겟다는意味에서質疑하는바이니 넘우고집하지말고 권말을이야기하여주기바라오

【答】 말슴은잘들엇슴니다 그러나監獄으로서는民衆의輿論을생각할必要도업고 이事實을이야기하야도民衆에게何等의有益이업겟다고생각함으로絕對로이야기는할수업슴니다

【問】 監獄에서이야기하지안는다하더래도이問題는社會的으로進展될것이다然이나最後말을아니하겟다는데야이座席에서는強問은할수업스나約一週日間騷動이잇섯는것만은事實이오

【答】 네―잇섯슴니다約一週日間소동이잇다가지금에는何等의問題가업시잘解決되엇습니다

民衆運動先驅로
犧牲된廿一名
예심을마치고공판에부처
統營의金淇正事件

통영김긔정사건(統營金淇正事件)의 희생자열두사람이모호한죄명으로 통영경찰서에 검속되어잇스면서 모다 울분함을참지못하야 단식동맹(斷食同盟)을단행하고잇는반면에일반가족들은궁금함을 견듸지못하야 몃번이나 면회를청원하여도 허락하지안코 그들의 신음하는소리만 각일각으로 위험성을 더하야류치장밧그로 새여나올뿐 아니라 경찰의 태도는 어데까지나고압수단을 직힐뿐이매 통영시민은 이에분개하야 통영서(統營署)를 습격하야면촌서장(田村署長)을 돌(石)로 따려니를두개나 부러트리는 한편으로김긔정의집을 파괴하야 통영시가가 수라장이 되엇든것은이미그당시에 루보함과 갓거니와이사건의선동자로 지목한다는 스물두사람의 남녀시민을 검속하야오륙개월 동안이나 마산법원지텽(馬山法院支廳)예심에부치엇든중 지난이십일부로 모다예심이결뎡되엇다는데 그중에김재한(金載翰)이란청년이 면소된외에 이십일명은 모다 동지텽공판에 부치엇다더라(마산)

野業하든婦女가
배암뙈고발알어
발에서붉은배암이뛰어나왓다고

평남덕천군 풍덕면옥유리 문성녀(平南德川郡豐德面玉踰里文姓女)란젊은녀인은 지난녀름에 시긔남편과함께 밧헤가서 김을 매든중 밧머리큰나무우에 큰배암(蛇)하나가 감겨잇슴으로 그 것을또차버리고 니어또김을 매든중 발바닥이 무슨벌레가무는 것가티 아품으로 즉시살펴보앗스나 아모것도업섯는데 그후 그발이 붓기시작하야 약한날농안이나 발을알라가 고름(膿)이 들엇는가하고 그것을 침(針)으로 터치엇든바 그곳으로부터약륙촌가량 되어보이는 새빨간배암이나와 일시는 살어잇섯다는데 그후그녀자는 무사하다더라(함흥)

그럴理는
絕對萬無하오
至誠病院鄭錫泰氏談

이에대하야 지성병원장 의학박사정석태(鄭錫泰)씨의말을들으면 조선뿐아니라 어느나라부녀든지 녀자란데게 미신에속는이가 만흔터이지마는 의학상으로보아 될때로그런명이업습니다 한방의사들이 첫으로 배다가 잘못하야 엇더케되엇는지는 알수업스나 피덩어리가나오면 나왓지 발바닥에서 붉은배암이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아마말하기조와하는 무당판수들이 돈푼이나 벌어먹자고 거진말선던을 하지나 안는지 알수업스나 엇더한 사람이든지 이런말에는 속지안는것이 조흘것입니다」하더라

貨車墜落으로
八名이慘死
중상자가열세명
◇咸南松興里慘事

지난십구일 오후두시사십오분 조선수뎐(朝鮮水電)의젼용인송흥리(松興里)로부터창모(搶鉾)에통하는녹잉구라인데제삼호잔교(棧橋)부근에서 화차(貨車)가활주하야 사십쳑되는 단애(斷崖)에떨어저서 동사급각조관계자여덜명이 참사하고 세명은중상을 당하엿다더라(함흥)

女子編物講習
전주근우지회서

근우회전주지회(槿友會全州支會)에서는 십월 이십사일부터 동회관내에서 약일주일 예뎡으로녀자편물강습회(女子編物講習會)를개최하고일반에게무료강습케한다는데일반녀자는만히 와주기를바란다 더라(전주)

內務部長의食言으로
實業校設立瓦解?
의사충돌로평의원은사직

충북충주군(忠北忠州郡)에서는 충북의 중심디되는 충주에실업학교(實業學校)가업슴을크게유감으로 생각하고 당디유지모모씨의발긔로 년래의론이 비등하여오던바 유지비(維持費)에 대하야는 본도원구도평의원(本道原口道評議員)으로 부터작년도에도본도긔야내무부장(磯野內務部長)에의뢰하야동학교유지비의 삼분의일은 디방비에서보조밧기로 확실승락을 엇고유지비삼분의이를 충주군 일원에서 판비하기로하엿든바지금와서는 긔야내무부장의의사가돌변하엿는지유지비삼분의일까지는디방비에서 줄수업다함으로 원구평의원은 내무부장과 의사가 충돌됨뿐아니라 분개하야 드듸어사임하얏다하며군에서도청원이적지안타더라(호서긔자단)

阿片쟁이掃清
개성경찰서에서

개성경찰서(開城警察署)에서는 관내에잇는모루히네중독자전부를소탕하고자로력하야전후이회에수십명의환자들경성으로수송하얏는데동서에서는아즉도경계망을것지아니하고계속활동하든중지난십구일에는또다시삼명의「모히」중독자들검거하야경성수용소로호송하얏다더라

列車에僧侶負傷
경원선에서

이십일일 오전여섯시 조곰넘어서 경성선석왕사역(京城線釋王寺驛)을출발한 제배삼호렬차가 진행중 선로우에 중(僧侶)한명이 지나감을 발견하고 즉시정거를시키엇스나그래도역시중은얼골과왼편귀에 부상하얏다는데 그로인하야 긔차는그곳에십일분간정지하얏다더라

姦夫姦婦共謀
本夫打倒後遠飛
평양방면으로종적을감춘듯

평남평원군 한천면 감이리(平南平原郡漢川面甘二里) 김병수(金炳洙)(二○)의 처리정삼(李貞三)은 항상남편에게불만을 가지고 서로히떠나 살긔회를엿보아오던중 지난달초순부터 동리에사는 최문봉(崔文峯)(二五)과 비밀히정을통하여 지나오는 가온데 지난십팔일 오전열시경 전긔김병수와 리정삼은 공모하여가지고 곤봉으로 자긔남편을 란타하야 인사불성에 이르게한후어데로인지 종적을 감추고말앗다는바 전긔최문봉은 방금생명이 위독하다하며 범인은평양방면으로도주한듯하다더라(평양)

絶壁에서墜落
生命이危篤

강계군 강계면남주동(江界郡江界面南州洞)에거주하는 면석현(田錫玄)은십구일에사돈집에갓다가 돌아오는길에강계성내에갓다가 동문밧으로 아홉시에북문외북천교(北門外北川橋) 건너편벽여척이나되는비알에서떨어저서고민하던중마참면긔회사에잇는김명화(金命和)외세사람이동행하다가보고즉시병원에입원을시켯는데생명이위독하다더라(강계)

被害者側이
賠償을請求?
경찰서를상대로

함남단천군의 잠견공동 판매사건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illegible] 주로 판매할수잇는 범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케무리스럽게 취급함은 자긔소유물의 처분자유를 박해하야 엇더업는 손해를입엇다하야 피해자인 전긔십일명은 단천경찰서를걸어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뎨긔하리라더라

驛頭에서
안해일코
경찰에수색원

경북김천(慶北金泉)경찰서에는 금번나히 삼십가량된 청년한명이 김천역압헤서 마누라를일코 차저달라고수색원(搜索願)을 제출하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김천군 황금뎡(黃金町)에잇는 홍모(洪某)의딸홍봉청(洪鳳成)(二三)을 안해로정하고 마산(馬山)에가서 포목상을 경영하여왓섯는데 그안해가일상 행실이조치아니함으로 마지 못하야친가로다려다두랴고동행해오든중지난십구일 오후네시 차에김천역에 나리자 전긔홍봉청의간곳이업서 즉시사방으로 차저보앗스나알길이업슴으로마츰내그가외리경찰에수색원을제출한것이라더라(김천)

專賣局員、警察官
六十老婆를亂打
십팔일담배묘사를나와서
불때는것을담배태운다고

지난십팔일 오전열시 영천군화산면 주재소(永川郡花山面駐在所) 순사부장영광번일(永廣繁一)은 동면덕암동(德岩洞)에잇는 리재숙(李在淑)의 처김동련(金同蓮)(六○)을구타권도케하엿슴으로 김동련은 현장에서혼도되어생명까지위태한지경에이르럿다는바현장에서이를목격한그의가족은 불론 린가사람들까지분개함을마지아니하야전긔영광순사를 노치지 안켓다함으로드듸어일대소동이 일어나 마츰내본서(本署)에서까지 서원을출동시켜 오후세시경에 일으러서겨우진압되엇다는데 이제 그자가현장을실디묘사한바에의하면피해자김동련의집에 담배(煙草)묘사하러 전매국원 장뎐등의(長田藤儀)와 전긔영광순사부장이일으러담배잇는가를 묘사 하라는지음에 마츰 전긔김동련이 가부억에 불을때고 잇섯든바순사부장영광과 전매국원 장뎐은이를보고 방금부억에 불넛는것은담배를 태우는것이라 의심하야그와가티 그녀자를 란타한것이라는데 영광순사는다수경관의호위중에본서로호송하고전매국원장뎐은죽일머구로 도망하엿다는바방금피해자는 공의에게 매일왕진을밧고잇는데 공의는 말하기를 좌우간뒤태한데책임상낫겟다고진단할수는 업다하며 만약숙병명은 부치자면노진탕이니지금으로서는 엇더타 말할수업다는긔색을 보이고 발음하지아니함으로 문데는 중대화할모양이라더라(영천)

社會團體蹶起
조사위원파견

이사실을접한 신간회 영천지회(新幹會永川支會)와영천청년동맹(永川靑年同盟)에서는곳조사위원정시명(鄭時明)김석련(金錫?)량씨를현장에 파견하엿다는데 아마문제의중대함을 보아서재영사회단체(在永社會團體)측에서는 그대책을강구 하리라하며 태도가결정됨에딸아서 상당한방책을취하리라더라(영천)

警察의即決罰金
裁判所서無罪判決
벌금삼십원이하십원이 정식재판에모다무죄돼
【端川蠶繭共販事件】

함남단천군(咸南端川郡)에서잠견생산자 오십여명이 모혀의론하고 대표자를뽑아 그생산한잠견전부를 경성조선농민사 알선부(朝鮮農民社斡旋部)에보내어군당국의 지휘알에잇는 산십조(山十組)에파는것보다 매두(每斗)에구십전식의리익을보게된것이 도령뎨삼호위반(道令第三號違反)이라하야단천경찰서에서는 대표자인 김명국(金炳國)이하 열명에대하야 한명에게는 [illegible] 열명에게는 십원식의벌금[illegible]한결과 그들은 이에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한일방에 동사건과 직접관계가잇는 경성조선농민사 에서는 이소식을 접한즉시로 신속히 사실의내용을 묘사하야 어대까지 공정한태도로써사건의진상(事件의眞相)을 텬하에공개하야 군당국의 행상덕롱락수단(行商的弄絡手段)을 공격하고 횡포무리한 경찰당국을비난하는동시에 공동판매 도의결함을 여디업시 론박하엿다함은 본지에이미 보도한바이오 또일반사회로부터는 사건의 추이(事件의推移)를주목하고잇게보

新上駐在所長
少年을無理亂打
조선말로설명을청하얏든바
군중에미혹시친다는협의로

지난십칠일 팔랑일암이군 신상(咸興郡新上)에서는신상소방조(新上消防組) 주최로긔본금을(基本金)모흐고자영화(映畫)흥행을하엿든바 상영초에 당디평내주재소장(當地駐在所長)은 일본말로 해설코저 함으로관람객중의 한사람인 신하리진승국(新下里陳承國)(二二)이란소년은발하되다수의조선사람을위하야 조선말로도 해설하야주기를바란다고하엿든바 평내소장은 관람객에게 미혹을시친다는 구실로 그소년을 당석에서발길로두번이나 찬후 또다시주재소에다리고가서누수란타하며군중에게미혹을 시친 너는죽기까지 따릴수잇는것이경찰의 특권(特權)이라고위협하야가며마츰내는 시말서(始末書)까지 바든후 새로한시가 되여 방석하얏스며 그이튿날인 십팔일밤도 신경과민된 전긔평내소장은 흥행장소압구에서서 순사에게 길못든두 사람에게까지 「야지」하는 줄로 알엇든지 주재소에치취표한후방석하엿다는바이로써일반간에는비난이자자하다더라(신상)

列車에投石
경찰은범인수색

이십일일 오후다섯시 이십분경 려객뎨오렬차(旅客第五列車)가 경부선영동、심천간(京釜線永同深川間)을통과중 선로의좌측으로부터 렬차에향하야 돌을던진자가잇서유리창한개를파손하얏는데경찰은범인을수색중이라고

◇取消申請 朝鮮日報昭和二年十月十二日第二五四九號五面에揭載된「處女時醜行이廿年後에畢竟不義의子는實父차자彷徨」이란記事는自初至終으로全然히無根한事實이옵기如是仰告하오니此記事取消를貴報에揭載하여주시옵소서

昭和貳年拾月拾七日

北靑邑東里崔會琛의實父 崔漢弼 ㊞

朝鮮日報北靑支局長 殿